

당신께 전하고픈 이야기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을 밝힌**
고독사를 **사회이슈화**한

1

제8대 부산광역시의원(전)

박민성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부산광역시의회의원선거 (동래구제1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민주당	박민성	남	1974.10.21. (51세)	정당인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전)제8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서관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473,008	79,621	393,387	부:고지거부 모:고지거부	장녀:없음 차녀:없음	육군 병장 (만기전역)	-	-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 보 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20,749	0	0	해당없음
후 보 자	3,649	0	0	
배 우 자	17,100	0	0	
직계존속	0	0	0	
	부:신고거부, 모:신고거부			
직계비속	0	0	0	

4. 소명서

당신을 설레게, 당신을 가슴 뛰게 하는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인권유린 사건, 형제복지원을 17년 파헤쳤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라는 희망고문을 했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왜 외롭게 생을 마감해야 하는지,
왜 스스로 삶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고독사와 자살을 줄여보겠다고 20여 년을 활동했습니다.

이름도, 생일도 모른 채 버려진 20만 명.
이분들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민은 서울시민보다 2년 더 아프고
2년 더 빨리 생을 마감해야 하는지,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치를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가 부산시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당신을 설레게, 가슴 뛰게 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다면 더, 더 강해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01

온천1동, 명륜동 주민여러분께

주민의 삶에 맞는 적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제신문과의 공동기획- 부산을 적정도시로]

온천1동과 명륜동은 달라졌습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생활환경은 변했지만, 복지·문화·생활기반시설은 제자리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늘어난 차량에 맞게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여가공간(공원, 쉼터 등)과 도서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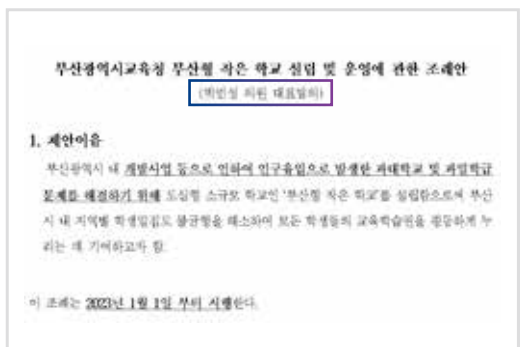
02

명륜동, 온천1동 학부모님께

통학로부터 통학구 조정, 주민과 함께 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민성 의원 대표발의)

[부산형 작은 학교 조례 일부]



재건축 준공으로 인구 유입 ▶ 학령기 아동·청소년 증가
▶ 학교 과밀 문제 발생 ▶ 학습권 침해와 통학 문제

2021년 6월 「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통학구 조정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작은학교 조례와 통학구 조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 학교를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명륜동, 온천1동 학부모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시작해서 통학구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설립은 6~7년 이상 걸리지만, 주민과 논의하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게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쉼 없이 뛰는 심장처럼, 동래의 중심에는 「네 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역사를 품은 동래시장, 삶이 깃든 수안인정시장,
젊음과 문화가 있는 명륜1번가, 소비를 이끄는 메가마트.

네 개의 상권은 상생을 위한 협력을 시도했지만,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상권의 협력을 시작하겠습니다.

메가마트에서 동래시장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동래시장 옥상에서는 명륜1번가 식당이 팝업을 열며,
명륜1번가 식당이 인정시장의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완인 문화와 축제, 사람이 모이는
‘동래시장 옥상 900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동래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동래구에는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동래구청장, 동래구의원과 협업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사라진 피해보상, 되찾겠습니다.

만덕~센텀 대심도 비상탈출구 공사로 낙민동 주민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2년 넘게 싸웠고, 저도 함께 했습니다.

주민들은 전국 최초로 피해보상을 논의하는 4자협의체(주민·부산시·부산시의회·건설사(GS))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성과는 사라졌고, 협의체가 논의한 주민복지시설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찾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룬 결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산 대심도 비상탈출구, 주민 안전 무시한 채 공사 강행

김동원 기자 2018. 07. 19. 09:00

부산 노포동 센텀 시가지 개발에 따른 정박차량 처리 시설 공사에, 주민 안전까지도 잊은

[부산=김동원 기자] 부산 119(www.119news.com)

부산-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사업의 비상탈출구 건설을 두고 논란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연봉 의원은 19일(18일) 오전 10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시 건설위원회, 본과와 시의회에 공개제기, 주민들의 계속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심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 낙민동 주민들, 대심도 비상탈출구 공사업장에서 내방 통행차량 시설 시설을 노후화 시키는 등

주거권/재산권을 위해 중재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주거여건이 좋고, 문화와 전통이 살아 있던 동래.

그러나 지금은 주거여건은 나빠졌고, 노후 주택은 늘어났습니다. 개발 여부에 따라 주거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안2재건축, 낙민1재건축(한양·한신·광림) 등 동래는 많은 지역에 재건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문화재와 공존하는 복산재개발, 중재와 조율을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피하지 않고 중재와 조율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가 부산시정에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삶의 희망을 놓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질병이 되었습니다.
- ▶ 노인인구의 비율 25%. 초고령사회도 문제지만 부산시에
는 100세 시대에 맞는 노인여가·노인문화정책 없습니다.
- ▶ 부모로부터 버려져 이름도 생일도 모르는 '고아호적'을
가진 분이 20만명이 넘습니다.
- ▶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특·광역시 중 1위, 서울시민보다
기대수명이 2.45년 짧습니다.
왜 부산시민은 많이 아프고 빨리 삶을 마감해야 할까요?

반드시 대안을 찾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시 전국최초로 외로움치유 조례 제정

"외로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시, 전국 최초로 외로움치유 조례 제정

외로움치유 조례 제정(2018.12.18)

"외로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시, 전국 최초로 외로움치유 조례 제정(2018.12.18)

외로움치유 조례 제정(2018.12.18)



부산시의회는 18일(수) 부산시의회 1차(제20기) 정기회의를 열어 '외로움치유 조례'를 제정하고, '외로움치유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부산KBS, 늙어가는 부산, 초고령사회 대책?



[30분] 특보의 부산

부산 공공병원 설립 신속히 추진해야

박민성 부산시의원 "부산 공공병원 설립 신속히 추진해야"

부산광역시의회는 18일(수) 부산시의회 1차(제20기) 정기회의를 열어 '외로움치유 조례'를 제정하고, '외로움치유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박민성 부산시의원 "부산 공공병원 설립 신속히 추진해야"

EBS다큐 시선(고독사)



부산MBC(감염병과 공공의료의 현실)



박민성 부산시의원 "부산 공공병원 설립 신속히 추진해야"

부산광역시의회는 18일(수) 부산시의회 1차(제20기) 정기회의를 열어 '외로움치유 조례'를 제정하고, '외로움치유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민이 우선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1 명륜, 온천1, 수민, 복산 박민성

제8대 부산광역시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원내수석부대표(전)
국회의원 비서관(전)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전)
부산일보, 국제신문 독자위원(전)
해운대고,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2018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인재영입
2014년 부산최초 시민사회 선정 시민후보
2011년 국제신문, 부산을 이끌 차세대 리더 선정



행복한 동래를 위해!
6월 3일 꼭 투표해 주세요!

사전투표

5.29(금)~30(토)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 ▶ 형제복지원 사건 이슈화 및 해결
- ▶ 고독사·자살 예방 추진
- ▶ 명륜동, 온천동 안전과 학습권을 위해 작은 학교 설립을 추진
- ▶ 낙민동 대심도 비상탈출구, 주민과 함께 해결
- ▶ 동래시장 옥상 프로젝트 추진
- ▶ 복산 재개발 등 주거여건 개선 추진
- ▶ BRT로 잃어버린 횡단보도와 도로 복원

더불어
민주당